

하나론 부족하다! 요즘 뜨는 N잡 플랫폼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조직 내 '좋은 사람'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린 요즘.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N잡 플랫폼'이 그것이다. 본업을 통해 업무 퀄리티를 인정받은 N잡러에 대한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며 이들과 기업을 연결하는 N잡 플랫폼도 뜨고 있다.

글. 편집부 자료출처. 트렌드인사이트, ZDNet Korea



N잡러를 양산해낸 '긱(Gig) 경제'

업무 시간 외 시간을 활용해 부업을 하는 N잡이 뜬 데에는 '긱 경제'의 확산의 여파가 주효했다. 긱 경제란 빠른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으로써, 1920년대 미국에서 재즈 공연의 인기가 높아져 자 즉흥적으로 단기적인 공연팀(Gig)들이 생겨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기존의 노동시장은 기업이 직원들과 정식 계약을 맺고, 채용된 직원들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였다면, 긱 경제에서는 기업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수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계약을 맺는다.

노동시장의 이러한 흐름은 다양한 기업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기업 우버는 직접 기사를 고용하는 대신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을 드라이브 파트너로 계약하고, 독립 계약자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마존은 고객들에게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6년 5월부터 개인 차량을 소유한 일반인을 배송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검증된 전문가 'N잡러'

이러한 긱 경제 상황 속에서 N잡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본업을 통해 그 사람의 업무 퀄리티가 검증되기 때문이다. '크몽'이나 '숨고' 등 재능마켓 서비스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N잡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이유 역시 이와 같다.

해외에서는 N잡 플랫폼을 통해 사업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선례가 나왔다. 해외 유명 N잡 플랫폼으로는 '업워크(Upwork)', '파이버(Fiverr)', 소프트웨어 개발자 구인 플랫폼 '토탈(Toatal)', 번역 전문 프리랜서 연결 '프로즈닷컴(Proz.com)' 등이 있다.

미국에 숙취음료를 처음 선보인 82랩스 이시선 대표는 낮엔 테슬라에서 근무하면서 음료 샘플을 만들었는데, 그 비결로 '파이버 활용'을 꼽았다. 해외 8곳의 공장을 알아보는 데 든 비용이 단 10만 원이었기 때문이다. 32개 외국어 어휘 학습 앱 '드롭스'의 창업자는 에스토니아에 서류상 본사를 두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일한다. 한국어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파이버와 번역 전문 프리랜서 연결 사이트 '프로즈닷컴'으로 한국인 번역가와 한국어 음성 녹음 전문가를 섭외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

추천! 'N잡 플랫폼'

1. IT 리모트 헤드헌팅 서비스 '시소(seeso)'

스타트업과 IT 회사 경험이 있는 검증된 인력들이 모여 있는 추천제 커뮤니티 'RUFREE'에서 최적의 팀을 구성하고, 도메인 지식이 있는 의뢰자가 그 프로젝트의 PM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개발자 900명, 디자이너 200명, 기획자 100명이 RUFREE 멤버로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2. 사회혁신 조직과의 협업 '샐러드볼'

슬로워크는 조직과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는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16년간 1,200곳 넘는 비영리단체, 소셜벤처, 공공기관 등 사회혁신 조직과 협업해왔다. 웹 개발자, 기획자, 디자인, 콘텐츠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파트너로 모집하고 있다.

3. IT 전문가매칭 서비스 '원티드 긱스'

인공지능 기반의 채용 플랫폼 서비스 원티드에서 2020년 출시한 서비스다. IT 직무 경험이 있는 200만 전문가를 2~3일 안에 매칭시켜준다. 데이터 수집에 대한 비용이 없고, 매칭 매니저의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전담 관리를 받을 수 있다.

